

작은 어촌에서 쉬고... 갯벌에서 놀고...



고창군 구시포 갯벌



강릉의 아들바위 공원



안산의 방아머리 해수욕장

여름 여행은 바다가 제격이다. 햇볕은 뜨거워도 바람이 시원하다. 그래도 못 참겠다면 바다에 풍덩 몸을 던지면 된다. 그뿐만 아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한없는 푸르름이 보는 이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뚫어놓는다. 여기까지는 보통 바다에서도 가능하니 작은 포구와 웅기 종기 모인 소박한 집들이 어우러진 어촌 마을을 한 번 그려 넣는 것은 어떨까. "바다"하면 해수욕장이나 휴양지를 떠올리며 질려 하던 사람들에게도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다가올 것이다. 마침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청수)가 '어촌이 있는 해변 풍경'이라는 테마로 이달에 가볼 만한 곳들을 선정, 발표했다.

▲ 갯벌 체험이 즐겁기에 더 챙겨야 하는 만조 시간, 고창 구시포(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고창군 구시포는 해수욕과 갯벌 체험으로 일거양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경사가 완만해 가족 물놀이 장소로 최적이며, 해변에서 백합도 잡을 수 있다. 구시포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계속 북쪽으로 가면 장호 어촌 체험 마을에 닿는다. 장호에서 구시포 해수욕장까지 백사장이 4km나 이어져 '고창 명사십리'라 불린다. 이곳에서는 동죽이 많이 나는데 한 시간만 채취해도 3kg 짜리 그물망 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다. 고창 고인돌 공원에서는 탐방로를 따라 2000년 12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석묘군(사적 제391호) 등 유적과 선사 마을 재현공간을 둘러보고 박물관에서 관련 지식을 쌓자. 고창읍성은 전남 순천 낙안읍성, 충남 서산 해미읍성 등과 더불어 '국내 3대 읍성'으로 꼽힌다. 성곽 바깥 길을 걷거나 성곽 위로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기암이면 성곽 위를 걸자.

고창 구시포 - 해수욕 · 갯벌 체험 '일거양득' 경사 완만해 물놀이 장소로 주문진 아들바위 - 크고 작은 항구 · 해변 즐비 기암괴석 줄줄이 이어져 안산 탄도 - 조개 · 게 · 게불 등 다양한 생물 서식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나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에 간다는 전설이 있다.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창건된 천 년 고찰이다.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키 6m, 수령 500년인 천연기념물 제 184호 동백나무들이 숲을 이룬 모습이 마치 보물 제290호인 대웅보전을 호위하는 듯하다. 금동보살좌상(보물 제279호), 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 등 고귀한 문화재가 즐비하다. 경내 찾전에 앉아 맑은 녹차 한 잔을 즐기자. '국화 옆에서'를 쓴 미당 서정주(1915~2000)의 고향답게 시상(詩想)이 절로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미당 시 문화관도 둘러볼 직하다. 절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불과하다. '고창 수박 축제'는 지난달 이미 끝났지만 여름이 깊어갈수록 당도가 더욱 높아지는 수박을 맛보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지난 4월 3만 평 규모의 유럽풍 농촌 체험형 테마공원인 상하농원이 오픈해 가볼 곳이 하나 더 생겼다. 고창군청 문화관광과 063-560-2456

▲ 이곳에서 우리 시대의 호를 생각한다. 주문진 아들바위(강원 강릉시 주문진을 해안로) 동해와 맞닿은 강릉에는 크고 작은 항구와 해변이 즐비하다.

덕분에 발길 닿는 곳 어디에서든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진다. 그중 하나가 아들바위 공원이다. 호젓하게 물놀이하기에 좋은 주문진 해변 남쪽에서 신선한 해산물이 풍성한 소돌항까지 해안을 따라 기암괴석이 줄줄이 이어지며 색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공원의 주인이 바로 아들 바위다. 기이한 생김새의 이 바위에 예로부터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빌어왔는데 한 노부부가 백일기도 끝에 아들을 얻었다 해서 본래 이름인 코끼리 바위, 소 바위를 제치고 아들 바위로 이름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몰리자 강릉시는 이곳에 나무 산책로를 놓는 등 일대를 공원으로 꾸몄다. 그 귀한 아들이 노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효가 사라진 요즘이어서인지 꼭 그랬으리라 믿고 싶다. 여류 예술가 신사임당(1504~1551)의 친정으로 조선 중기 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1536~1584)가 태어난 집인 오죽헌, '홍길동전'을 쓴 조선 중기 사상가 허균(1569~1618)과 그 누나인 여류 시인 허난설헌(1563~1589) 생가 등과 가깝다. 주문진항에서 출발해 해안선을 따라 경포 해변까지 갔다 주문진항으로 돌아오는 바리스타 크루즈도 주목받는 관광 상품이다. 승조원이 전원 바리스타라니 선상에서 바닷바람 마시며 즐기는 커피 맛이 탁월할 듯하다. 강릉시청 문화관광과 033-640-5131

▲ 로맨스와 신토불이의 만남, 안산 탄도(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동) 안산 대부도 남쪽의 탄도항은 10여 년 전만 해도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포구가 아니었다. 하지만 탄도 일대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서 푸른 바다와 하얀 바람개비가 로맨틱한 풍경을 연출하고, 하루 두 차례 썰물 때 누에섬까지 바다 사이로 길이 연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유명해졌다. 썰물이면 드러나는 이 지역 갯벌은 풍부한 영양분 덕에 조개, 게, 게불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힌다. 바지락 캐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갯벌 체험은 탄도항과 차로 10여 분 떨어진 선감어촌체험마을에서 진행된다. 트랙터를 타고 방파제를 따라 3km가량 들어가게 되는데 보드랍고 서늘한 갯벌 위 바지락 캐기는 여행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준비물은 장화, 장갑 등이다. 호미, 바구니 등은 소정의 체험료를 내면 빌릴 수 있다. 호미도 빌려주지만 녹슨 것이 많으니 호미를 준비해 가는 것이 요령이다. 애써 캐낸 바지락이 상하지 않게 아이스박스도 챙기자. 탄도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직판장에 가면 1층에서 직접 횡간을 고르고, 2층에서 갯벌을 바라보며 맛갈스럽게 즐길 수 있다. 바지락 칼국수나 조개구이 등도 인기 메뉴다. 대부도를 가로질러 북안도로 향하면 대부도 내 유일한 해수욕장인 방아머리 해변이 아담한 모습을 드러낸다. 해수욕장 뒤편에는 숲이 드리워졌다. 대부 해수욕장을 건너 1코스 출발점인 방아머리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 좋다. 대부도의 갯벌 생태계와 옛 어촌 풍습 등을 전시한 안산 어촌 민속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도 유익하다. 안산시청 관광과 031-481-2722 /뉴스

전라북도 | 2017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ORGANIZING COMMITTEE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